

소백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분석¹

김용근²

The Analysis of Visitor's Behavior in Sobaeksan National Park¹

Yong-geun Kim²

요 약

소백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2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773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특성은 남자가 61.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교육정도는 고졸과 대졸 이상이 각각 40.8%와 46.9%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용객이 52.8%로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소백산 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55.8%의 응답자가 초행인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동기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친구나 동료가 가장 많았다. 활동의 특성에 있어서는 당일 이용객이 응답자의 62.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도시락을 지참하는 비율은 37.8%였다. 국립공원내에 설치된 경관해설판이 소백산 국립공원을 이해하는데 유용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공원이용에 대한 간섭은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Visitors to Sobaeksan National Park were surveyed from August 6 to 9 and from October 16 to 18. During this time, 773 visitors were contacted. Of those individuals, 61.7% were males, 40.8%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gone beyond high school, and almost one-half (46.9%) had gone as far as college. 52.8% were 20 years of age. Over one-half (55.8%) of the survey respondents were making their first trip to Sobaeksan National Park. The largest percentage of respondents were reported that they visited Sobaeksan Nat'l Park for enjoying natural landscape. In group type, 62% were traveling with their associates or friends. In activity characteristics, 62.9% were day-time visitors, and 37.8% mentioned carrying in their own food. The majority of visitors perceived that landscape interpretation boards were useful to understand Sobaeksan Nat'l Park. Most respondents were not likely to intervene to stop other visitors' depreciative behavior.

1 접수 1월 15일 Received on January 15, 1993

2 동신대학교 조경학과 Dept. of Landscape Arch., Dong-shin Univ., Naju, Chonnam 520-714, Korea

서론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활동이나 여가활동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에 대한 이용객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본래의 의의를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한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김, 1993, 인쇄중)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환경오염행위를 줄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에서의 쓰레기처리문제는 국립공원 관리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되었으나 그 해결방안이나 관련 연구는 기존의 수동적인 폐기물 수거나 처리 등과 같은 초보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 이용행태 연구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회과학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김, 1991 : 1992b).

국립공원내에서 환경훼손 문제는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기는 하지만(김, 1992b) 상당부분은 이용자가 국립공원내에서 관리지침이나 관리정책의 배경을 잘 모르고 저지르는 무지의 경우이거나, 습관적으로 행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의 결과가 대부분이다(Kim, 1990 ; 김, 1992a). 국립공원내에서 이용자의 환경훼손행위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관리배경을 이용자들에게 설명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공원관리에 바람직한 방안으로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는 Communication 기법이 효과적이며(Ross, Moeller, 1974 ; Lucas, 1982 ; 김 과 Gramann, 1991), 그 이론적인 배경이나 (Gramann and Vander Stoep, 1987 ; Kim, 1990) 현장에서의 실용성에 대해서 (McAvoy and Hamborg, 1984 ; Gramann, Steward and Kim, 1989) 깊고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줄이기 위한 Communication 기법의 사회과학적인 접근에 대한 소개나 실험적인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으나(김, 1991 ; 김, 1992a, 1992b ; 이, 오, 서, 김, 1992 ; 이, 오, 김, 서, 1993 (인쇄중) ; 김, 1993 (인쇄중) ; 김 등, 1991) 그 연구의 깊이나 범위에 있어서 미흡한 실정이다.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논의중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표현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오염행위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일반 시민들의 도덕성에 대한 무감각증이 문제라고 강조되기도 한다.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남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고 정정하도록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 (Bystander Intervention)라고 하며(김,

1992b). 외국의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연구들이 폭넓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Latane and Darley, 1970 ; Morgan, 1978), 국립공원을 비롯한 여가공간에서의 반 사회적인 훼손행위를 줄이는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Chrisensen, 1981 ; Oliver, Roggenbuck and Watson, 198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일반적인 주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백산 국립공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행태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공원이용행태나 활동특성의 조사와 더불어 국립공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Communication기법중 관리정책에 대한 배경설명의 효과와 동시에 다른 이용객의 바르지 못한 행위를 지적하는 끼어들기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중심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분석자료는 소백산 국립공원 현장에서 사회과학 조사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남녀 대학생으로 구성된 조사팀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묻는 질문과, 방문동기나 동반자 특성을 묻는 이용특성, 활동특성, 소백산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리정책에 대한 견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조사는 여름조사와 가을조사 등 2회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여름조사는 1992년 8년 6일부터 1992년 8월 9일까지 3박 4일동안 실시되었고, 가을 조사는 1992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장소는 여름조사와 가을조사 모두 3곳에서 실시되었다. 즉, 회방사쪽 국립공원 입구와 천동계곡쪽 국립공원 입구, 그리고 소백산 국립공원의 정상인 비로봉 등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조사원들이 소백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국립공원을 탐방하고 귀가하는 이용자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의뢰했으며, 총 773명의 공원 탐방객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응답자를 조사 장소별로 구분하면 회방사 계곡의 국립공원 입구에서 495명, 천동계곡의 국립공원 입구에서 189명, 그리고 비로봉 정상에서 89명이 참여하였다.

2. 분석방법

현장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는 전산처리한 후 SPSS/PC⁺ 통계처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분석내용에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및 변수간의 상관분석이 포함된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환경현황

(1) 자연환경

소백산 국립공원은 1987년 12월 1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공원면적은 320.5Km²으로 경북지역에 172.3Km², 충북지역으로 148.2Km²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경북지역의 공원구역은 남부 관리사무소에서, 그리고 충북지역의 공원구역은 북부 관리사무소에서 각각 분리 관장하고 있다.

주요 공원자원은 산악자원으로 소백산의 최고봉인 비로봉(1,439m)을 비롯하여, 제 1연화봉(1,394m), 연화봉(1,283m), 국망봉(1,420m), 신선봉(1,385m) 등이 있으며, 준봉사이의 계곡으로는 회방계곡, 비로계곡, 천동계곡 등이 있다. 특히 제 1 연화봉 정상에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소백산 천문대의 관측소가 설립되어 있는 각각 13명씩 총 26명의 관리인에 의해 관만 회방계곡에 위치한 회방폭포는 영남의 제 1폭포라는 평을 받을 만큼 수려한 경관자원으로 손꼽힌다. 문화자원으로는 부석사, 회방사, 및 비로사 등의 사찰이 위치해 있다.

소백산 국립공원의 경관적 특성으로는 봄에는 연화봉과 비로봉 구간의 능선에서 관찰할 수 있는 철쭉 및 각종 야생화가 있으며,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워 이른 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국립공원 탐방자원이 다양한 편이다. 특히 비로봉 정상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45,000평의 주목 군락지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존차원에서나 탐방객들의 관찰자원으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관리환경

소백산 국립공원은 북부와 남부 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각각 13명씩 총 26명의 관리인에 의한 관리되고 있으며, 청소원, 매표원, 감시원등의 일용직은 별도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내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영림서에서, 그리고 비로봉 주변의 주목 군락은 천연기념물 관리로 단양군에서 각각 중복관리하고 있다.

소백산 국립공원의 관리현황중 다른 국립공원의 관리와의 차이점은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등산로와 사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나무 계단등 보호시설이 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소백산 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로봉과 제 1연화봉 정상부에 국립공원 관리에서는 처음으로 경관 해설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3) 이용객 현황

소백산 국립공원의 1992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약 290,000여명의 탐방객이 소백산 주변을 찾으며, 국립공원 입장객수는 약 21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사찰이나 국립공원 주변의 계곡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제외하고 순수한 산악 탐방객수는 약 260,000여명으로 탐방의 행태는 5, 6월의 철쭉이나 야생화류를 감상하려는 이용객과 8월 여름철 계곡을 찾는 이용객, 그리고 가을 단풍 감상객들이 전체 이용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이용행태 특성

(1)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본 조사에서 수집된 설문지 773매에 응답한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남자가 61.7%, 여자가 38.3%로 나타났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수준이 40.8%, 대졸수준의 응답자가 46.9%로 고학력자의 이용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적인 특성에서는 학생이 전체의 27.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무기능직과 전문관리직, 이용자가 각각 15.3%와 15.1%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응답자의 5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25.3%, 40대가 11.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산 (이, 김, 권, 1987), 한라산 (이, 최, 김, 1992)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분포에서는 월평균 60만원에서 90만원 수준이 응답자의 24.5%로 가장 많았으며, 90만원에서 120만원 수준의 응답자는 23.2%, 그리고 30만원에서 60만원, 12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이 각각 15.2%와 14.5%로 나타났다.

소백산을 방문한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시단위 거주자는 응답자의 81.8%, 군단위 이하에서 거주한 응답자는 18.2%로 나타나 소백산 국립공원 이용자의 대부분은 시단위 거주자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는 경북지역이 응답자의 2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이 18.0%, 충북이 11.0%, 그리고 경기와 대구가 각각 9.2%와 8.0%로 나타나 소백산 이용자들의 상당부분은 소백산 국립공원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밝혀졌다.

(2) 이용특성

1) 이용빈도

소백산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의 유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8%인 430명이 초행이었으며, 1-2회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3.5%, 3-4회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7.8%, 그리고 5회 이상인 사람들이 13.0%순으로 나타났다. 소백산 국립공원 이외의 다른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의 유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만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여 소백산 국립공원을 찾아 온 방문객의 대부분은 한번 이상씩 다른 국립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백산의 국립공원의 경험에 있어서 5곳 이상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탐방객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3-4곳이 30.8%, 그리고 1-2곳이 25.5% 순으로 나타났다. 소백산 국립공원의 이용빈도와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과의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성별차이와 연령별, 그리고 교육수준별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1).

2) 방문동기

소백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주된 동기에 대해서 소백산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목적이 응답자의 44.8%로 가장 높았으며, 정상등반이 21.1%, 계곡의 물놀이가 14.2%, 자연탐사가 7.9%, 절방문이 4.5%, 그리고 기타가 7.2%로 각각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많은 방문객들이 자연경관을 감상할 목적으로 소백산 국

립공원을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경향은 자연자원 중심적인 국립공원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최, 김, 1992).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과 교육수준이 높은 이용객들의 소백산 국립공원 방문동기는 등산이나 자연경관 감상을 목적으로 한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square검증 결과 연령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거주지역의 원근별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었다 (Table 2).

3) 동반자 특성

소백산 국립공원을 이용한 사람들의 동반자 특성을 살펴보면 친구나 직장동료들과 함께 온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끼리가 28.7%, 혼자서가 3.0%, 관광회사의 주선에 의한 단체관광이 2.6%, 그리고 기타가 3.6%로 나타나 소백산 방문객은 친구나 직장동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은 젊은층의 경우에 친구나 동료들과 소백산 국립공원을 방문한 반면 중년층은 가족동반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같은 결과는 다른 국립공원 이용자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최, 김, 1992). 동반자 특성과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과의 교차분석 결과 연령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거주지의 원근별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3).

(3) 활동특성

Table 1.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visting times.

	Gender**		Age**					Education**				Residence	
	Male	Female	Less 20	20-29	30-39	40-49	Over 50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Near	Far
1-2 times	13.0	12.6	3.3	15.5	3.3	2.8	1.4	0.8	2.0	13.8	8.6	11.8	13.7
3-4 times	17.0	13.4	2.0	17.0	7.0	3.6	1.3	0.8	1.3	11.2	17.6	14.8	16.1
Over 5	29.0	10.2	1.1	18.4	13.8	4.5	0.8	1.9	0.5	13.4	23.5	16.5	22.4
First visit	2.7	2.1	0.5	2.4	1.1	0.5	0.3	0.4	0.4	2.4	1.3	2.1	2.7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01.

Table 2.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visting purpose.

	Gender**		Age**					Education**				Residence**	
	Male	Female	Less 20	20-29	30-39	40-49	Over 50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Near	Far
Climbing	13.3	8.1	1.6	14.5	4.3	0.7	0.3	0.4	0.7	9.1	11.3	9.4	11.7
Nature Appreciation	27.5	17.2	2.6	22.1	12.0	6.2	1.9	1.4	2.2	20.0	21.2	22.4	22.4
Visiting Temple	2.4	2.0	0.3	1.5	1.2	0.8	0.7	0.1	0.3	1.8	2.3	1.5	3.0
Rippling	9.2	5.1	1.5	6.1	4.4	2.3	0.4	1.4	0.7	4.6	7.9	6.1	8.5
Nature study	4.5	3.4	0.8	3.6	2.2	0.8	0.3	0.3	0.7	3.7	3.3	2.1	5.8
Etc.	5.3	1.9	0.1	5.1	1.1	0.5	0.3	0.4	-	1.6	4.9	3.6	3.6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01.

Table 3.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group type.

	Gender**		Age**					Education**				Residence**	
	Male	Female	Less 20	20-29	30-39	40-49	Over 50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Near	Far
Party	1.4	0.9	0.1	1.2	0.5	0.3	0.3	0.4	0.4	1.2	0.4	1.6	1.1
Friend/company	37.9	24.3	4.0	42.6	10.9	3.4	1.1	1.4	2.2	25.7	32.9	31.4	30.6
Family	18.0	10.7	2.2	5.5	12.7	6.5	2.0	1.9	1.8	10.9	14.3	9.0	19.7
Alone	2.7	0.4	0.1	1.9	0.5	0.4	0.1	-	-	1.4	1.8	1.3	1.7
etc.	1.8	1.9	0.5	2.2	0.4	0.4	0.1	0.3	0.1	1.4	1.8	1.5	2.1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 < .01$.

1) 계절별 활동장소 및 이용코스

소백산 국립공원을 이용한 사람들의 이용코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회방사 계곡을 집중적으로 이용한 사람들과 회방사 입구로 진입하여 제 1연화봉을 거쳐 회방사로 다시 내려오는 사람들이 각각 22.9%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회방사 입구로 진입하여 제1 연화봉과 비로봉을 거쳐 천동계곡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11.9%, 천동계곡 입구로 진입하여 비로봉, 제 1연화봉을 거쳐 회방사로 내려가는 경우가 11.5%, 천동계곡으로 진입하여 비로봉을 등정하고 다시 천동계곡으로 내려온 경우가 10.2%, 회방사 입구로 진입하여 제 1연화봉과 비로봉을 거쳐 회방사쪽 입구로 내려 온 경우가 9.9%, 천동계곡의 국민관광단지를 이용한 사람들은 4.2%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소백산 국립공원을 이용한 사람들 중 회방사나 천동계곡쪽의 국립공원 입구를 이용하여 비로봉까지 등반을 하고 온 사람들이 응답자의 43.5%로 방문객중 상당수의 탐방객은 비로봉까지 등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천문대나 제 1연화봉까지 다녀 온 탐방객은 응답자의 66.4%로 나타났다.

조사 계절별 차이에 있어서 여름철 이용객은 계곡을 이용할 목적이 많은 경향을 보인 반면, 가을 이용객의 경우에는 등산이 목적인 경우가 많았다. 소백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코스에 있어서도 여름 이용객은 회방계곡이나 천동계곡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비로봉을 등반하는 경우에도 여름철의 경우에는 천동

계곡쪽 국립공원 입구를 통하여 입장하는 이용객이 많은데 그 이유는 여름철에 천동계곡쪽 국민관광단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천동계곡쪽 공원 입구를 통한 입장객이 증가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Chi-square 검증결과 계절에 따라 이용목적이나 이용코스의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4).

2) 체재 및 숙박행태

소백산 국립공원에 머무른 체재행태에서는 6시간정도 머무른 이용자는 응답자의 4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박2일이 36.6%, 6-12시간정도 체재한 탐방객은 13.2%로 각각 나타나 소백산 국립공원 이용행태는 당일 이용자가 전체의 6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백산 국립공원에서의 체재행태는 남성의 경우가 여성에 비하여, 그리고 젊은 연령층의 숙박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아무래도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숙박을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Chi-square 검증결과 성별, 연령별, 그리고 거주지의 원근별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5).

소백산 국립공원에서의 숙박행태는 공원구역내에서 야영을 한 경우가 29.8%, 인근 도시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26.9%, 공원내에서 민박을 한 경우가 21.8%, 그리고 기타가 21.5%로 나타나 공원구역내에서 숙박을 한 이용자는 과반수를 넘는 51.6%로 나타났다.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야영을 했을 경우 야영한

Table 4. Crosstabulation between visiting seasons, purposes and course.

	Visiting Purpose**						Visiting Course**			
	Climbing	Natural Appreciation	Visiting temple	Rippling	Natural study	Etc.	Climbing through Hübang valley	Cimbing through Chundong valley	Chundong valley	Hübang valley
Summer	8.7	27.2	3.7	13.9	6.2	3.8	23.6	14.0	6.7	17.8
Fall	12.3	17.6	0.8	0.7	1.7	3.3	23.0	8.5	0.3	6.1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 < .01$.

Table 5.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staying type.

	Gender**		Age**					Education**				Residence**	
	Male	Female	Less 20	20-29	30-39	40-49	Over 50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Near	Far
6 hours	30.1	13.4	3.6	23.0	13.0	7.5	2.4	2.3	3.0	13.1	25.4	22.9	24.9
6-12 hours	7.4	6.1	1.2	7.4	3.6	0.9	0.3	0.3	0.7	6.5	5.9	7.6	5.5
over night	24.5	12.5	2.0	22.3	8.7	3.1	1.1	1.4	0.7	15.1	19.7	12.5	24.6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 < .01$.

Table 6.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seating type.

	Gender**		Age**					Education				Residence	
	Male	Female	Less 20	20-29	30-39	40-49	Over 50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Near	Far
Staying at private hours	18.8	10.7	1.1	14.7	4.4	1.6	0.4	0.7	0.4	9.0	11.9	9.0	12.8
Camping	22.4	7.2	2.5	16.8	7.7	2.6	0.4	1.1	2.1	13.1	13.8	11.3	18.5
Hotel	19.3	7.4	0.7	11.7	8.1	4.9	1.1	0.7	0.5	12.2	13.3	10.2	16.6
Etc.	9.7	12.0	2.1	12.3	4.0	1.8	1.4	1.1	1.2	9.2	9.7	8.1	13.3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 < .01$.

Table 7. Crosstabulation between social characteristics and eating type.

	Gender		Age**					Education				Residence**	
	Male	Female	Less 20	20-29	30-39	40-49	Over 50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Near	Far
Field cooking	19.9	12.2	3.2	19.3	7.0	1.9	0.5	1.5	1.1	14.2	15.1	12.8	19.2
Lunch Box	23.3	14.4	2.3	21.7	9.3	3.0	0.4	1.2	2.1	15.9	18.7	20.2	17.5
Booth	11.6	8.0	1.0	7.1	6.0	4.4	1.2	0.8	1.1	6.8	10.8	8.8	11.0
Etc.	6.8	3.9	0.4	5.1	2.7	1.9	0.4	0.4	0.1	4.0	6.1	3.7	6.8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 < .01$.

장소의 분포는 계곡에서 야영을 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야영장으로 28.6%가 답변한 반면 공원내 야영이 가능한 곳에서나 비로봉 근처에서 불법으로 야영한 경우가 각각 21.1%와 3.0%로 나타나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의 야영을 단속하는 공원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 이용자나 젊은 연령층이 야영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별이나 연령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6).

3) 식사방법 및 쓰레기 처리방법

식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시락을 준비해 온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내에서 취사를 한 경우가 31.9%, 주변에서 매식을 한 경우가 19.8%, 그리고 기타가 10.5%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국립공원을 방문하면서 도시락을 준비해 온 탐방객들이 늘어 나는 현상은 여러가지 국립공원 이용자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경향이다 (이, 최, 김, 1992). Chi-square 검증결과 응

답자의 연령별, 거주지의 원근별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7).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국립공원에 설치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응답자가 63.7%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경우가 33.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에 숲속에 묻었다는 경우, 태운 경우, 그리고 안보이는 곳에 치워 두었다는 경우는 각각 1%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백산 국립공원의 탐방객들의 쓰레기 처리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측의 통계에 의하면 연간 발생하는 오물의 총량이 152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소백산관리사무소, 1992), 일반적으로 탐방객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공원이용행태와 실제로 현장에서 관찰되는 공원이용 행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Manning, 1986 ; Ajzen and Fishbein, 1980).

(4) 공원관리에 대한 인식

1) 소백산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이용이나 관리상태에 대한 이용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을 통하여 소백산 국립공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였다.

가) 자연경관 : 소백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의 수려함에 대해서 응답자의 83.6%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12.3%는 그저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단지 3.1%의 응답자만이 그렇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소백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에 대한 일반 탐방객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전에 소백산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여부나 응답자의 거주지가 소백산 국립공원에 가까이 있거나 멀리 위치한 차이에 따라 소백산의 경관의 수려함을 인식하는 차이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나) 청결과 안전성 : 소백산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응답자의 24.7%와 9.0%는 각각 그저 그렇다거나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응답자의 9.0%만이 소백산 국립공원의 청결과 안전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백산 국립공원의 청결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가 이전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에 비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t=3.43, p<.05, \text{one-tailed}$),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문한 이용객이 근거리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1.67, p<.05, \text{one-tailed}$).

다) 이용자 질서 : 소백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질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0.8%만이 문란하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응답자의 57.8%는 문란하지 않다고 긍정적이었고, 그 나머진 21.4%의 응답자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이용자들의 질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백산 국립공원의 방문경험의 유무와 거주지의 위치에 따른 인식의 차이비교에서 소백산 국립공원에 초행인 이용객이 경험이 있는 이용객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t=2.70, p<.05, \text{one-tailed}$), 이용자들의 거주지의 위치차이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라) 휴게장소 정비 : 소백산 국립공원내에 이용자의 휴식시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2%가 잘 정비되

어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27.5%는 부정적인 답변을, 그리고 39.4%에 달하는 응답자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다른 관리부분의 평가에 비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 공원내에서 이용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휴게장소의 정비에 대하여 초행자가 소백산 국립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t=2.15, p<.05, \text{one-tailed}$), 소백산에서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이용객이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이용객에 비하여 휴게장소의 정비가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2.17, p<.05, \text{one-tailed}$).

마) 방문자 붐비 : 소백산 국립공원이 이용자들로 붐비는 정도에 대하여 39.3%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반면 22.7%는 붐비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나머진 38.0%는 그저 그렇다고 답변해 소백산 국립공원은 전반적으로 이용객들에 의해 붐비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백산 국립공원이 이용객에 의해 붐비는 정도에 대해 초행인 이용객이 방문경험이 있는 이용객에 비해 ($t=-6.31, p<.05, \text{one-tailed}$),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원거리에서 온 이용객이 근거리에서 온 이용객에 비하여 ($t=4.25, p<.05, \text{one-tailed}$) 덜 붐비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바) 안내판 설치 : 소백산 국립공원내에 이용자를 위한 안내판 설치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5.8%였으며, 응답자의 18.8%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33.5%의 응답자는 그저 그렇다고 답변함으로써 소백산 국립공원내의 안내판 설치에 대해 약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내판 설치가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인식에서 소백산 국립공원 방문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나 두 변수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소백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문한 이용객이 근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용객에 비하여 안내판의 설치가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3.18, p<.05, \text{one-tailed}$).

사) 관리자의 친절여부 : 소백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동안 공원 관리인들의 친절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1%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21.8%의 응답자나 50.1%의 응답자는 각각 친절하지 않거나, 그저 그렇다고 답변해 전반적으로 공원 이용객들에 대한 관리인들이 친절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공원 관리인들의 이용자에 대한 친절성 정도에 대해서 초행자가 방문 경험이 있는 이용객에 비하여 ($t=2.15, p<.05, one-tailed$), 그리고 원거리에서 온 방문객이 근거리에서 온 방문객에 비하여 ($t=-2.99, p<.05, one-tailed$)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백산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며, Chi-square 분석의 결과 초행자나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가까이 거주하는 응답자와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나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이용객들의 공원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난 것은 소백산 국립공원에 친숙한 이용객이 그렇지 못한 이용객에 비하여 공원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나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Manning, 1986).

2) 종합적인 만족도

포괄적인 측면에서 소백산 국립공원을 방문한 후의 종합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4%만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답변한 반면 응답자의 10.5%는 그저 그렇다, 그리고 88.0%의 응답자는 만족한 것으로 답변해 종합적으로 소백산 국립공원의 방문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경관 해설판에 대한 견해

가) 경관 해설판 인식

전국의 국립공원 중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관 해설판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7.5%, 못 보았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62.6%로 많은 사람들이 경관 해설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 해설판을 인식하는 경향은 숙박을 하는 이용객이나 소백산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공원을 한 나절동안 이용한 사람이나 초행인 사람들에 비하여 더 높았으며, 방문코스의 변수에 대해서는 정상을 등산한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경관 해설판을 인식하였다. 이 결과는 숙박하는 이

용객이 아무래도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많았을 때 주위의 여건을 인식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아 주위를 관심있게 관찰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경관 해설판이 정상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지점학상의 특성 때문에 계곡에 머무른 이용객에 비하여 정상을 등산한 이용객이 더 많이 인식한 것으로 이해된다 (Table 8).

나) 유용성 여부

경관해설판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해설판의 유용성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유용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22.6%는 그저 그렇다, 그리고 5.1%만이 별 도움이 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소백산 주변의 경관을 설명하여 탐방객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경관 해설판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립공원과 같이 옥외휴식공간을 탐방한 이용객들은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정보를 얻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으므로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의 효과적인 공급기술은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

4) 취사행위 목격과 대처방법

소백산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응답자의 37.4%는 다른 사람들의 취사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고, 62.6%에 달하는 응답자는 목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변해 국립공원내에서 취사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상당히 협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도 응답자의 37.4%가 공원내에서 취사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소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취사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대처하는 행태로는 불법 취사행위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이야기한 4.6%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사행위를 목격하고 그냥 지나치면서도 31.8%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같은 공원 이용자로서 공동책임감을 느꼈으며, 나머지 13.8%의 경우에는 지나치면서도 동행자에게 취사행위는 해서는 않된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답변했다.

Table 8. Crosstabulation between activity patterns and perceiving landscape interpretation board.

	Staying type**			Visiting time**		Visiting Area**			
	6hr.	6-12hr.	Overnight	First visit	Experience	Climbing through Hübang valley	Climbing through Chundong valley	Chundong valley	Hübang valley
Perceiving	24.6	9.5	24.2	29.7	28.1	30.9	15.4	2.9	8.0
No Perceiving	24.3	4.3	13.1	25.9	16.3	16.5	7.9	3.4	15.0

** Difference between percentag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Chi-square $P<.01$.

이 결과에 의해 국립공원 이용객들이 다른 이용객들의 잘못된 이용행위에 대하여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설령 국립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탐방객들이 선도차원에서 다른 이용객들의 행위에 간섭하는 것은 개입자에 대한 피개입자의 보복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Kim, 1990 ; 김, 1992b).

5) 관리에 대한 책임인식

소백산 국립공원의 생태계과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용자에 의한 훼손행위가 가장 크다고 답변했으며 (82.4%), 국가의 정책부재, 공원 관리자의 관리태만, 그리고 중앙 관리부서의 감독 소홀등에 대한 책임은 각각 8.3%, 4.9%, 5.8%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소백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탐방객들은 국립공원의 환경훼손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양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결과는 국립공원에 대한 조사에서나 (김, 1993 인쇄중),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 오, 서, 김, 1992, 이, 오, 김, 서, 1993 인쇄중).

6) 소백산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대한 견해

소백산 국립공원 관리의 장기대책에 관해 응답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4가지의 가상적인 공원관리 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첨가한 설문지와 설명을 삽입하지 않는 설문지 등 2가지를 무작위로 배부 작성하게 하였다. 설명이 첨가된 설문지에 응한 응답자는 383명으로 응답자의 49.7%, 그리고 설명이 없는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은 388명으로 응답자의 50.3%를 차지했다.

국립공원 관리의 가상적인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에게 찬성, 반대, 그리고 잘 모르겠다의 3가지 의사결정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가) 정상부의 쓰레기장 철거

소백산 국립공원의 정상부에 설치된 쓰레기장을 철거하려고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중 51.2%가 찬성의사를 나타낸 반면, 29.8%는 반대의사를 그리고 19%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 결과는 4가지의 질문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쓰레기통이 철거됨에 따라 쓰레기처리의 번거러움을 감수하려는 의사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쓰레기장을 철거하는 것이 소백산 국립공원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설명이 첨가된 설문을 받은 응답자가 그렇지 못한 응답자에 비하여 이 관리정책에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Chi-squares=20.7, $p < .0001$).

나) 취사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이용자의 불법 취사행위를 규제하는 법적근거를 강화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79.6%는 찬성의사를, 응답자의 10%는 잘 모른다, 그리고 10.4%의 응답자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설명이 첨가된 설문지를 작성한 응답자와 설명이 없는 설문지를 작성한 응답자 사이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다) 통나무 디딤목 설치

등산로 보호를 위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통나무 디딤목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65.5%는 찬성의사를, 20.4%는 반대의사를 그리고 14.1%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설명이 첨가된 설문지를 작성한 응답자와 설명이 없는 설문지를 작성한 응답자 사이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라) 경관 해설판 설치

경관 해설판을 더 많이 설치할 예정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79.9%는 찬성의사를, 11.1%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9.1%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설명이 첨가된 설문지를 작성한 응답자와 설명이 없는 설문지를 작성한 응답자 사이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국립공원에서 4가지의 가상적인 관리정책에 대해 설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에서 소백산 국립공원의 정상부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철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제공받은 응답자들이 그렇지 못한 응답자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었으나 취사행위 규제나, 등산로에 통나무 디딤목 설치 및 경관 해설판 설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정상부의 쓰레기통 철거방침의 경우 이용자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 직접 감수해야 할 댓가가 큰 반면, 나머지의 경우는 이용자들이 감수해야 할 댓가가 적든지 아니면 거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이용자들의 부담이 큰 사항일수록 새로운 관리정책을 도입하기 이전에 정책의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Kim, 1990 ; 김, 1991).

7)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정보입수 경로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의 이용이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친구나 동료를 통하여 얻는 경우가 46.6%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를 통한 경우는 18.1%, 공원내에 설치된 안내판을 통한 경우가 15.3%, 라디오나 T.V를 통해서가 7.4%, 관광업자

의 관광소개를 통한 경우가 7.3%. 공원에서 배부하는 자료에 의한 경우와 학교교육을 통해서가 각각 3.2%와 2.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같이 여타의 연구에서 국립공원 이용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친구나 직장동료들에게 입수하는 경향이 있는 (김, 1993 인쇄중) 것으로 나타나 국립공원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백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에 대한 관리 주체측의 Communication정책의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공원의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정도는 처음 이용자가 이용의 경험이 있는 이용객에 비하여, 그리고 소백산에서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이용객이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이용객에 비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옥외 여가공간에서 이용자들이 한 장소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시에 문제점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둘째, 국립공원의 관리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는 경우 이용객들의 협조를 증가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용객들이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협조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몸소 감수해야 할 댓가가 큰 경우에 이용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홍보가 선행되도록 Communication 정책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관리 주체와 이용객간의 Communication은 대부분이 안내판이나 계도판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데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는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관 해설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등산 행태가 정상 도전형이기 때문에 주위에 대한 인지력이 다소 떨어지고, 경관 해설판에 대해 생소하기 때문인지 경관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식했던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해설판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경관 해설판을 본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보다 더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립공원에 대한 이용정보는 대부분이 친구나 동료들을 통하여 얻고 있었고, 반면에 국립공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았고, 동시에 관리인들의 친절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던 것을 감

안할 때 탐방객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홍보매체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급이 요구된다. 특히 국립공원의 훼손책임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들의 훼손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상적인 관리정책중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점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이용자들의 자세가 아직은 상당히 양심적이라고 이해되며, 앞으로 바람직한 관리방안이 연구개발된다면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훼손행위를 줄일 수 있는 기대가 높다고 판단된다.

세째, 국립공원의 이용자 관리중 다른 사람들의 훼손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간섭하는 끼어들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다른 이용객의 바르지 못한 공원 이용행위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공동책임감 정도를 느끼고 있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의 신고제도 도입이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객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하는 막연한 도덕적 차원의 협조를 바라기 보다는 개입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와 관리주체측간의 Communication 정책의 효과와 이용자의 도덕성이나 책임감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관리개념을 실험한 초보적인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한 관리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섬세한 연구가 계속되어야겠다.

인용문헌

1. 김용근. 1991. 국립공원의 레크레이션 이용개발. 한국조경학회지 19(3) : 145-148.
2. 김용근 과 Gramann, J. H. 1991. 국립공원내의 환경오염행위 관리를 위한 Communication 정책의 효과. 한국조경학회지 19(2) : 32-40.
3. 김용근. 1992a. 자연휴양자원 관리를 위한 Social Dilemma 해소방안. 한국임학회지, 80(3) : 287-295.
4. 김용근. 1992b. 도시공원에서의 이용자 훼손행위 관리방안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0(1) : 101-105.
5. 김용근. 1993 (인쇄중). 자연공원내에서 환경오염행태 관리를 위한 Communication 정책의 효과 -국립공원에 대한 지식수준과 행위의도와의 관

- 제 -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소백산 관리사
6. 소백산 관리사무소. 1992. 업무현황.
 7. 이경재, 최송현, 김선희. 1992. 한라산 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분석. *응용생태연구* 6(1) : 72-85.
 8. 이명우, 김용식, 권영선. 1987. 북한산 국립공원의 이용행태 특성과 등산패턴. *응용생태연구* 1(1) : 66-82.
 9. 이정전, 오준성, 서혜경, 김용근. 1992.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향상에 관한 연구, 광주직할시 시정연구논총. 창간호 : 203-251.
 10. 이정전, 오준성, 김용근, 서혜경. 1993 (인쇄중).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 향상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광주직할시 시정논총 : 2.
 11.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2. Christensen, H. H. and Clark, R. N. 1983. Increasing public involvement to reduce depreciative behavior in recreation settings. *Leisure Sciences* 5(4) : 349-379.
 13. Gramann, J. H., Stewart, W. P, & Kim, Y. G. 1989. Visitor Response to Concession Management Alternatives at Calsbad Cavern National Park. TX : Texas A&M University.
 14. Gramann, J. H., Vander Stoep, G. A. 1987.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natural resources protection : A conceptual synthesi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24.
 15. Kim, Yong-Geun. 1990. Depreciative Behavior in Outdoor Recreation Settings : An Experimental Application of Prosocial Behavior Theory. Unpublished dissertation. College Station, TX : Texas A&M University.
 16. Lantane, B. and Darley, J. M. 1970. The Responsive Bystander : Why Does'nt He Help? N. Y. : Appleton.
 17. Lucas, R. C. 1982. Recreation regulations-When are they needed? *Journal of Forest*. 80 : 148-152.
 18. Manning, R. E., 1986. Studies in Outdoor Recreation :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Social Science Literature in Outdoor Recreation. Corvallis, OR : OSUP.
 19. McAvoy, L. H. & Hamborg, R. 1984. Wilderness visitor knowledge of regulations : A comparison of visitor contact methods. *Journal of Interpretation*. 9(1) : 1-10.
 20. Oliver, S. S., Roggenbuck, J. W. & Watson, A. 1985. Education to reduce impacts in forest campgrounds. *Journal of Forestry*. 83(4) : 234-236.
 21. Robertson, R. D. 1982. Visitor knowledge affects visitor behavior. In *Forest and River Recreation : Research Update*, (pp. 49-51). Univ. of Minn.
 22. Ross, T. L. & Moeller, G. H. 1974. Communicating Rules in Recreation Areas. USDA For. Serv. Research Paper NE-297. Upper Darby, PA : Northeast Forest Experimental Station.